

“계승 통해 당시 생활 엿볼 수 있어”

박재금 교수, 화엄사에서 열린 한국불교학회 워크숍서



후기 계승을 통해 본 선(禪)과 일상'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박 교수는 "고려 후기 계승에는 선가에 보급된 차문화와 채식 위주의 식생활, 청규의 간행으로 인한 생활의 법도 정비, 노동활동 등을 수용한 풍토 등이 담겨 있어 고려 전기의 귀족적 불교에 비해 더욱 현실적 삶과 밀접해진 선종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의 상징물로 쓰이고 있으며, '아침이면 함께 죽을 먹고/ 죽 먹고 나면 발우를 씻네'라는 종지 스님의 계승에서의 죽과 발우는 매일 되풀이되는 일상사 속에 존재하는 도리, 즉 '도(道)'를 뜻한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율력을 통해 노동의 의미를 드러내고 차 마시는 행위로 진리 자체를 상징하는 것처럼, 일상적



2월 10~11일 구례 화엄사에서 한국불교학회 겨울 워크숍이 '한국의 문화, 불교에 녹다'를 주제로 열렸다.

고려 후기 계승은 현실과 밀접해진 선종 성격 일상 소재는 깨달음 숨기려는 선사들의 경지

"선사들은 계승을 통해 법리(法理)를 드러내 보이는 데 있어 일상적 삶의 공간과 사물을 주로 이용했다"고 말하는 박 교수는 나옹 혜공 스님과 혜심 스님, 종지 스님의 계승을 예로 들었다. "전에는 스승의 손에 있더니 이제는 제자의 손에 들어왔네"라는 혜심 스님의 계승 구절에 등장하는 부채는 번뇌 망상을 쫓는 것은 물론 전

소품에 일관된 주제를 담아 거론하는 것은 선사들의 관습적 표현방식"이라고 말한다.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신다"는 나옹화상의 계승과 같이 일상생활의 모습을 그대로 담아낸 계승은,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이 일상사를 떠나지 않은 일임을 드러내 보이는 방편이라는 것이다. "법부의 일상처럼 보이는 선사들의 생활은 치열한 수행을 통해 도달

한 '도'의 공극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소재로 읊은 계승은 결국 깨달음의 자취를 숨기며 흔적조차 드러내지 않는 선사들의 경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박 교수는 "계승을 통해 일상생활과 도를 합치시킴으로써 일상적 삶의 의미를 새롭게 인식시킨 점은, 선가의 범주를 넘어 고려시대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불교문화를 통해 그 시대를 읽어보려는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고 밝혔다.

'한국의 문화, 불교에 녹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워크숍에는 이미향 조계종 포교연구실 상임연구원이 '사원에서 만나는 법의 소리와 음악 상징들'을, 유마리 국립고궁박물관 학예연구관이 '한국의 불화'를, 불교전문번역가 진우기씨가 '불교와 영화-김위의 인생'을, 유근자 동국대 박사가 '간다라 불전도와 불교도상'을 각각 발표했다.

한편, 학회지 <한국불교학> 47집은 2월 말 경 발간될 예정이다. **구례=여수령 기자**



■ 조계종 멸빈자 사면 수면위로?

오는 3월 개원될 제173회 조계종 임시중앙총회에서 멸빈자 사면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를까?

조계종 법규위원회(위원장 천재)는 2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39차 회의를 열고 '도연·법철 스님의 대사면에 의한 재심사 요청의 건'과 '원두·종원·혜은이 제기한 위원심판 청구의 건'에 대해 '계류' 결정을 내렸다.

1994년 종단 개혁불사 당시 중정 사서실장이었던 원두, 불국사 주지였던 종원, 시대불교신문 발행인이었던 혜은 등은 "3차례 등원 통보만으로 본인의 진술이나 호법부로부터 죄상에 대한 문책, 자백도 없이 권력지배됐다"며 위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법규위는 두 건에 대해 오래 전 일이라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신청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점, 종단 화합을 위해 중앙총회와 집행부, 호계원 등의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천재 스님은 "멸빈자 사면 문제는 중정

법규위, 합의 도출 필요 '계류' 결정

중정 법전·총무원장 지관 스님도 긍정적 중앙총회 동의 필요... '3월 거론은 미지수'

스님의 교시가 있었을 뿐 아니라 총무원장스님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오는 3월 임시총회 때 총무원장스님이 이 문제와 관련해 언급이 있을 것"이라고 여운을 남겼다.

이와 관련 중정 법전 스님은 지난해 교시를 통해 "통합종단 출범 이후 멸빈 등 중징계를 받은 자 중 참회와 개전의 정이 현저한 자를 포용하는 대화합 조치를 강구하라"며 사면을 언급했다. 당시 총무원장 지관 스님도 "94년 문제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종단이 화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발전적인 변화가 있을 경우 과거 징계를 받은 분들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하지만 멸빈자 사면 문제를 풀기 위해선 중앙총회의 동의를 있어야 한다. 과거 3차례에 걸쳐 멸빈자 사면을 위한 종헌개정안이 중앙총회에 상정됐지만 모두 부결됐다. 멸빈자 사면 문제가 녹록치 않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종단 한 관계자는 "94년과 98년은 문제의 성격이 다르고, 3월 임시총회는 결산총회일 뿐 아니라 '총무원법' '중앙총회의원선거법' 개정안 등 현안 문제가 대두돼 있어 멸빈자 사면 문제가 거론될 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남동우 기자**

아시아 중심 박물관으로 도약

국립중앙박물관 '비전 2020'

국립중앙박물관(관장 김홍남)이 2020년까지 '아시아 중심 박물관'으로 거듭난다. 국립중앙박물관은 2월 14일 장기발전계획 '비전 2020'을 발표하고, 자국 문화재 중심의 전시에서 탈피해 일본·인도네시아·베트남 등 아시아 각 지역의 문화와 문화재를 소개하는 '아시아관'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비전 2020"은 '진흥의 장' '창조의 장' '열린마당' '교류의 장' 등 4가지 추진영역으로 구성돼 있으며, 부문별로 총 34가지 핵심 추진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오는 10월 경에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주관하는 '아시아국립박물관협의회' 창립대회를 개최해 한국 박물관의 위상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릴 계획이다. **여수령 기자**

불사도 하고 한지도 살리고

전주 참종은 우리절, 한지공예 체험전 열어

전주시 삼천동 참종은우리절(주지 회일)은 고려시대의 감지금니기법을 활용한 104위 신종탱화 조성을 완료하고 3월 18일 신종탱화 점안식을 봉행한다. 또 '사찰명화와 전주한지의 만남'을 주제로 한지 체험 및 전시회를 개최한다.

특히 한지전시회에는 불화(佛畵)로 장식된 한지수위와 연등, 가사, 장삼, 승복, 인형, 축원카드, 찻상, 좌복 등이 전시되고, 한지연등 소품바구니 등을 직접 만들어보는 한지공예 체험전이 펼쳐진다.

이번 행사는 그동안 지역내에서 화장식 장례문화 정착과 한지수의 보급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온 참종은우리절 회일 스님이 탕화 점안식을 계기로 '전통 한지

산업 육성에 불교가 앞장서야 한다'는 취지 아래 전주시 한브랜드과의 협력하여 개최하게 된 것. 한편 2000년 4월 창건된 참종은우리절이 10년도 되지 않은 짧은 기간동안 주목받는 사찰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수행, 전법교육, 봉사회향이라는 일관된 목표를 가지고 매월 2회의 월야 용맹정진 기도를 통한 심신수행과 불교 문화대학 운영 등을 통한 신도교육에 힘입은 바 크다.

주지 회일 스님은 "사찰의 모든 역량을 기도수행과 교육전법에 집중하여 봉사회향하는 신도를 육성함으로써 참종은우리절이 척박한 전북지역 불교 활성화를 이끌어 가도록 한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원우 기자**

육천 대성사·혜오자원봉사대 의료봉사



육천 대성사(주지 혜철)는 매월 2·4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혜오자원봉사연합회(회장 이범석)와 함께 지역민을 대상으로 치과치료와 법률상담, 수지침·발마사지 무료봉사를 실시한다(사진).

혜오자원봉사연합회는 혜오대체의학연구학회, 한밭동양의학연구학회, 한국간강증진협회 대전·충청지회, 세계간강활법협회, 한국음악치료연구학회 등 건강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모임이 참여하는 봉사단체다. 혜철 스님은 "의료혜택을 받기 힘든 주민들에게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삶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다는 뜻에서 이번 봉사활동을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043)732-5560 **여수령 기자**

북에 내복 보내기 운동 펼쳐



대구 정도회(대표 전병덕)가 북한 어린이들에게 겨울 내복 1만 벌 보내기 운동을 세우고 성금과 물품 모으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11월 20일부터 시작된 모금은 2월 27일까지 100일 동안 계속된다. 회원들은 매일 저녁 9시 정도법당에서 발원된 남복과 300매 정진을 진행하고 있다. 또 주말이면 동성로 등 시내 일원에서 기금 및 물품 모으기 활동을 벌이고 있다. 대구 정도회는

대구 정도회(대표 전병덕)가 북한 어린이들에게 겨울 내복 1만 벌 보내기 운동을 세우고 성금과 물품 모으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11월 20일부터 시작된 모금은 2월 27일까지 100일 동안 계속된다. 회원들은 매일 저녁 9시 정도법당에서 발원된 남복과 300매 정진을 진행하고 있다. 또 주말이면 동성로 등 시내 일원에서 기금 및 물품 모으기 활동을 벌이고 있다. 대구 정도회는

불교학연구회 겨울 워크숍

불교학연구회(회장 이종표)는 2월 24~25일 영천 은해사에서 '불교 장례문화의 역사와 과제'를 주제로 겨울 워크숍을 개최한다. 원혜영씨(연세대)가 '초기불교의 장례-불타의 열반에 관해서'를, 송위지 교수(서울

보건대)가 '한국의 장례문화'를, 김시덕 학예연구사(국립민속박물관)가 '일본의 장례문화'를 각각 발표하고 송현동 교수(건양대)가 '바람직한 장례문화'를 제시한다.

한편 25일에는 신인 회장에 선출된 본각 스님의 취임식도 열린다. **여수령 기자**



세계불교 임제종 창종 선포 및 법요식



석가모니부처님을 교조로 하여 임제종(臨濟宗)의 개조(開祖)이신 임제 의현(義玄)선사(禪師)를 종조(宗祖)로 하고 선교를 수지 선양합니다. 우리나라 선종은 대개 임제종풍이었으나 태고 나옹선사 이후 부터는 확실히 임제종의 선풍을 이어 받았고, 이를 더욱 선양하고자 종단운영에 필요한 종헌, 종법을 마련하고 중생교화의 지침이 될 터전을 마련하여 부처님의 광명을 만고에 빛나게 하고 삼보를 법계에 유전케 할 것입니다. 삼가 세계불교 임제종 창종을 선포하는 바이니, 함께 할 종도대중은 따르시기 바랍니다.

창종 법요식

- ◆ 일시 : 불기 2551(2007)년 양력 3월 18일(음, 1월 29일) 오전 10시부터
- ◆ 장소 : 총본산 송원사 (경남 김해시 외동 699-5)
- ◆ 전화 : 055)338-4008 / 011-868-2850

종도 사암모집

세계불교임제종 창종과 더불어, 함께 할 종도여러분들을모십니다. 수행과 전법의 터전이 될 본종단의 일원으로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세계불교 임제종 중정 대행겸 총무원장 법광 석혜공

총무원 : 경남 김해시 외동 699-5번지 문의전화 055)338-4008 / 011-868-2850